「와치가이몬(두 개의 원형고리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모양을 표식화 한 것)」이 새겨진 돌

통칭 「오테마에 거리」로 불리는 이 거리는, 마쓰에 성하마을이 생긴 에도시대 초기에 정비되어,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로 폭의 변화없이 이용되고 있었습니다.

도로를 넓히는 공사로 매장문화재 조사를 행하던 중, 도로 쪽 도랑 뒤편에 돌을 쌓아 만든 에도시대의 석조 수로가 남아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. 수로에 사용된 대부분의 돌은, 통칭 오미사키돌(와쿠라야마산 화산암)이라고 불리는 지역산 석재로, 마쓰에성 축벽에도 널리 사용되었습니다.

주목해야 할 점은, 석조 수로 뒷편에 「와치가이몬」이라고 불리는 각인이 발견된 점입니다. 원래 각인은 축성시에 축벽 건축을 한 가신 등이 자신의 가문의 문양을 새긴 것으로 보이며, 마쓰에성내 축벽에서는 각인이 새겨진 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.

여기에서 발견된 「와치가이몬」은, 마쓰에성을 축성한 호리오씨가 사용한 가문의 문양 중 하나이며, 각인을 새긴 것은 같은 가문 문양을 사용한 가신일 것으로 생각됩니다.

단, 석조 수로는 호리오씨가 다스리던 시대가 아닌, 그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, 이 석재는 석조 수로로 전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또한, 전시되어 있는 돌은 실제로 발굴 현장에서 출토된 것입니다.